

‘간부 할아버지’ 오영수 월드스타로

골든글로브 TV시리즈-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 한국 배우 최초 수상... 이정재 남우주연상 불발

팔순을 바라보는 대학로 원로배우가 미국 골든글로브 트로피를 안았다. 한국 배우의 첫 수상이다.

‘간부 할아버지’ 오영수(78)는 한국시공간으로 10일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시리즈-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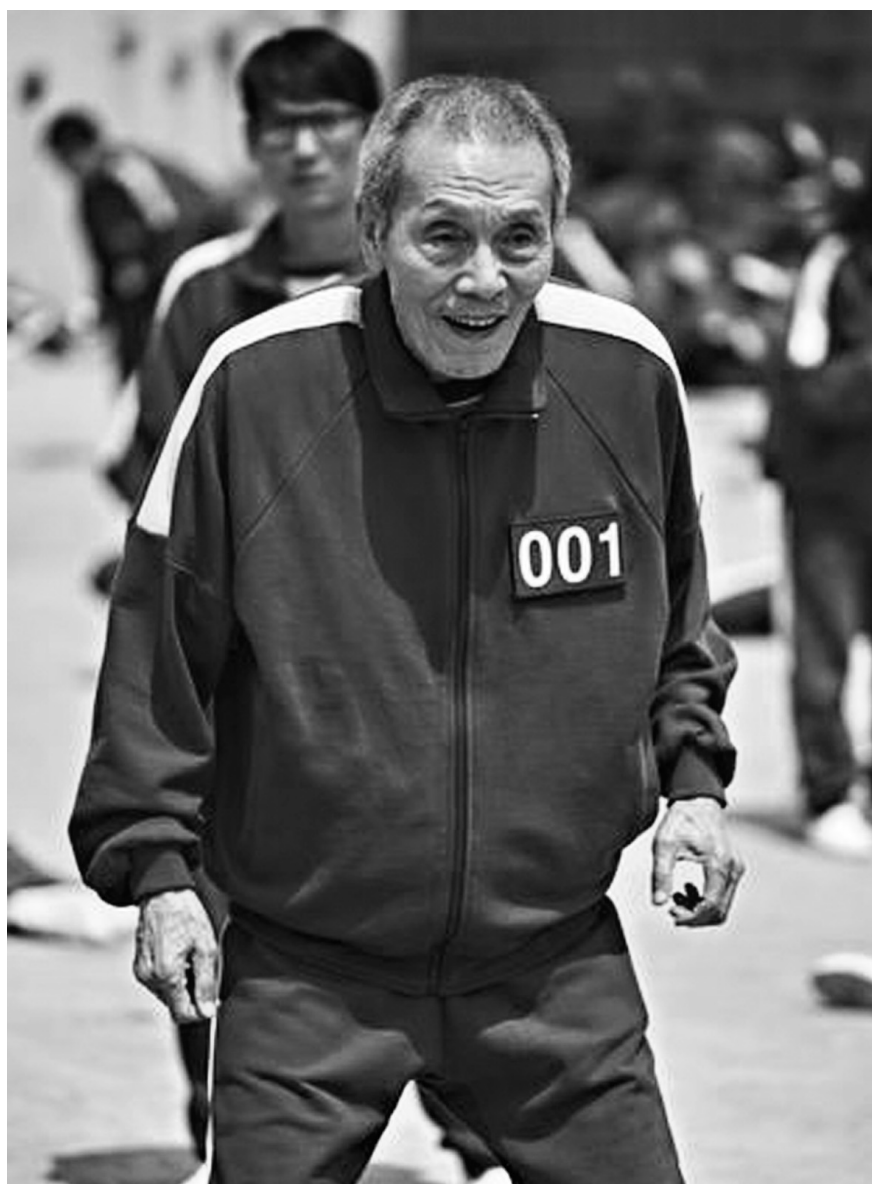
오영수는 ‘오징어 게임’에서 묵음 같은 구슬을 이정재에게 건네며 “우리 간부(구슬치기 등의 놀이에서 같은 편을 의미하는 속어)잖아?”라는 목격한 대사로 세계인을 사로잡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묵음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렸다.

극 중 참가번호 001번, 뇌종양을 앓는 오일남으로 등장한 오영수는 마냥 신난 모습으로 게임을 즐기다가도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러 들자 “그만하라”고 절규하며 깊은 울림을 줬고, 마지막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한 작품 안에서 해맑은 아이 같다가도 연륜이 묻어나는 노인으로도 재로운 연기를 선보인 오영수는 대중에게는 낯설지만 사실 반세기 넘게 연극무대를 지켜온 대학로 터줏대감이다.

1963년 친구를 따라 극단 광장 단원에 들어가면서 연기 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리어왕’, ‘파우스트’, ‘3월의 눈’, ‘흑인 창녀를 위한 고백’ 등 200편이 넘는 연극에 출연했다.

1987년부터 2010년까지는 23년간 국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제공

‘오징어 게임’ 이전 TV나 스크린에 나온 그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를 ‘스님 전문 배우’로 오해하기도 했다.

드라마 ‘선덕여왕’ (2009)에서는 월천 대사, 고(故) 김기덕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2003)에서는 노스님, 2015년 이동통신사 광고에서는 실현과 함께 나뭇배에 탄 스님 등으로 등장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오영수는 작은 배역의 어린 후배부터 허드렛일하는 막내 스태프까지 누구에게나 점잖은 ‘신사’로 통한다.

그러면서도 문화계 행사나 인터뷰 등의 자리에서 나설 때면 나이 든 배우들이 설 자리가 부족한 연극계 현실과 국립극단의 정체성 위기 등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어른이기도 하다.

‘오징어 게임’의 흥행 이후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모델 제의를 받았지만, 작품 속에서 중요한 비중을 지닌 ‘간부’라는 대사를 이용해 광고를 찍는 것은 작품의미를 훼손한다며 완곡히 거절한 사실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낳았다.

한편, TV드라마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이정재 수상은 아쉽게 불발됐다. 이 부문은 ‘식세선’의 제레미스트롱에게 돌아갔다.

“저가 연기하는 방식은 박강준과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남이 곤두서 있고,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가혹할 정도로 그렇게 작업하는 면이 있거든요.”

강력 범죄나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실제 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범인을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

“목표 향해 달려가는건 님았죠”

조진웅, 영화 ‘경관의 피’ 서 형사 박강준 역

출처 불명의 막대한 후원금으로 고급 빌라에 살고 명품 수트를 빼입고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형사가 있다.

상위 1%가 저지르는 마약 범죄에서 탁월한 검거 실적을 자랑하는 광역수사대 반장 박강준은 자신의 호화생활을, 귀족을 잡기 위해 귀족들 사이로 들어가는 수단으로 정당화한다. “범죄 추적은 어떤 경우에도 위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조진웅은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보내 주기로 하고 다음 날인가 전화해 ‘준비가 됐으면 좀 더 수정해서 보내주겠다’고 한 뒤 그걸 받는 데 수개월이 걸렸다”며 “방대한 원작 소설을 임팩트 있고 유익하게 만드셨더라. 스타일리시하면서도 밀도감 있고 흥미로운 작업이었다”고 했다.

영화 ‘경관의 피’ (감독 이규만)에서 형사 박강준을 연기한 조진웅은 최근 온라인 인터뷰에서 일하는 방식에서는 자신이 박강준과 닮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제가 연기하는 방식은 박강준과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남이 곤두서 있고,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가혹할 정도로 그렇게 작업하는 면이 있거든요.”

강력 범죄나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실제 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범인을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

그는 지난해 해외 영화제에 초청받기도 한 단편 연출작 ‘력사: 예고편’의 본편에 해당하는 장편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해외 진출 계획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답한 그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제는 할리우드에서 우리 작품을 리메이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당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부응해 어떤 작업을 하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려고요. 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면 참 좋은 것이고, 쉼터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영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개봉 영화 가운데 가장 빨리 300만 관객을 넘겼다. 사진은 최근 서울의 한 영화관. /연합뉴스

“K팝 주인공은 우리”... 1월부터 컴백 대전

엔하이픈·프로미스나인·모모랜드 등 음원 예고 ‘R&B 여왕’ 박정현도 2년여 만에 새 앨범 발표

K팝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 새해 첫 달 인기 아이돌 그룹부터 실력과 솔로 가수들까지 잇달아 컴백해 주목된다.

10일 가요계에 따르면 ‘차세대 보이그룹’으로 꼽히는 그룹 엔하이픈은 이날 오후 6시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 ‘디멘션: 앤서’ (DIMENSION : ANSWER)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정규 1집 ‘디멘션: 딜레마’ (DIMENSION : DILEMMA)를 낸 이후 3개월만의 컴백이다.

가요계에서는 정규 1집으로 데뷔 1년 만에 ‘밀리언 셀러’를 기록한 엔하이픈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리패키지 앨범은 지난 7일 기준 전주판매량 63만 장을 넘어섰다.

음악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히는 그램미(Grammy)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앨범 30선’ (30 Must-Hear Albums In

2022) 기사에서 엔하이픈의 앨범을 그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2022년 새해 컴백을 준비하는 걸그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프로미스나인은 이날 17일 오후 미니 4집 ‘미드나잇 게스트’ (Midnight Guest)를 발표한다.

2017년 방송된 엠넷 ‘아이돌학교’를 통해 결성된 프로미스나인은 지난해 스페셜 싱글 ‘톡앤톡’ (Talk & Talk)을 통해 톡톡 튀는 에너지를 발산하며 음원 사이트 상위권에 오른 바 있다.

유통사 YG플러스 등에 따르면 ‘미드나잇 게스트’는 지난달 30일 예약 판매를 시작한 이후 이달 3일까지 닷새간 전주 판매량 8만 장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모모랜드는 ‘야미 야미 럽’ (Yummy Yummy Love)을 통해 새로운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이달 14일 발표하는 디지털 싱글에는

남미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나티 나타사가 참여했다. 나티 나타사는 모모랜드의 신곡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앨범 전 과정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돌그룹뿐 아니라 솔로 가수들의 컴백도 하나둘 예고돼 있다.

동방신기의 최강창민은 이달 13일 두 번째 미니앨범 ‘데블’ (Devil)을 발표한다.

미니 1집 ‘초콜릿’ (Chocolate)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선보이는 이번 앨범에는 최강창민이 직접 작사한 타이틀곡 ‘데블’을 비롯해 ‘에일리언’ (Alien), ‘피버’ (Fever) 등 총 6곡이 수록된다.

SM엔터테인먼트의 새해 공원에서 공개된 ‘피버’는 지독한 열병에 걸린 듯 상대방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없을 만큼 빠져드는 감정을 표현한 곡으로, 히트메이커 유영진이 작업해 눈길을 끈다.

‘R&B 여왕’ 박정현도 2년 만에 새 앨범을 내놓는다.

그간 ‘편지할게요’, ‘꿈에’, ‘유민에 브리싱 투 미’ (You Mean Everything



그룹 엔하이픈 /빌리프랩 제공

To Me) 등 솔한 히트곡을 냈던 박정현은 이달 12일 미니앨범 ‘다시 겨울이야’를 선보인다.

박정현 측은 “겨울의 한 가운데에서 이별한 이와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고 추억하면서도 봄이 되면 눈이 녹듯 모든 것이 잊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발라드곡”이라고 설명했다.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 4주째 정상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이 한국 영화 ‘경관의 피’ 등 신작들을 제치고 4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1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스파이더맨’은 지난 주말 서울(7~9일) 동안 30만명(매출액 점유율 36.1%)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스파이더맨’은 지난달 15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659만8,000여명이다.

최근 미국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열리는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 카’는 독립·예술영화 부문에서 3주 연속 정상을 차지하며 누적 관객 3만명을 돌파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지난해 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고, 전날(현지시간) 전미비평가협회상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등 주요 부문을 휩쓸었다.

한편 지난 주말 극장을 찾은 관객은 전주(109만6,000여명)보다 20%가량 줄어든 87만명으로 집계됐다.

규현, 미니앨범 ‘연애소설’ 25일 발표

그간 계절별로 새로운 노래를 발표해온 슈퍼주니어 규현이 겨울 감성을 담은 ‘연애소설’ (Love Story)을 내놓는다.

소속사 레이블SJ는 규현이 이달 25일 오후 6시 각 음원 사이트를 통해 네 번째 미니앨범 ‘연애소설’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매한 싱글 ‘투게더’ (Together) 이후 6개월 만에 내놓는 신보다.

규현은 2020년 7월부터 계절의 감성을 노래로 발표하는 ‘프로젝트: 계절’ (Project: Season)을 진행해왔다. 이번 음반은 사계절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앨범이다.

규현은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영상에서 “드디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겨울 앨범이 발매된다”며 “귀 녹음 준비하세요”라고 말했다.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월 11일 (음력 12월 9일)

<p>子</p> <p>48년생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60년생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잡아라. 72년생 능력을 발휘하고 신앙을 얻는다. 84년생 대어를 낚는 운세 좋은 날이다.</p>	<p>丑</p> <p>49년생 되는 일이 없는 한심한 날이다. 61년생 유흥가에는 절대 가지 말라. 73년생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잡아라. 85년생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다.</p>	<p>寅</p> <p>50년생 단순해 보여도 심사숙고 하면 이롭다. 62년생 예상치 못한 공돈이 들어온다. 74년생 지나친 욕심은 버려라. 86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추진하라.</p>	<p>卯</p> <p>51년생 의리를 지키면 보답을 받는다. 63년생 어른의 말씀을 새겨들여라. 75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터진다. 87년생 정신없이 바쁘게 살익은 별로 없다.</p>
<p>辰</p> <p>52년생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64년생 유흥가는 얼씬도 말라. 76년생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88년생 성심으로 치성하면 허물 이 사라진다.</p>	<p>巳</p> <p>41년생 음지가 양지되는 날이다. 53년생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65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77년생 참고 버티면 좋은 일이 있다.</p>	<p>午</p> <p>42년생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54년생 불행은 행운과 함께 온다. 66년생 내 예상보다 결과가 훨씬 좋다. 78년생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한다.</p>	<p>未</p> <p>43년생 남도 보고 뽕도 따는 날이다. 55년생 하늘이 돕고 있으니 만사형통이다. 67년생 뒤집어 생각하면 길이 보인다. 79년생 말보다 실천이 필요하다.</p>
<p>申</p> <p>44년생 사랑으로 감싸주고 응시하라. 56년생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68년생 결심을 했다면 주저하지 말라. 80년생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 있다.</p>	<p>酉</p> <p>45년생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조각배의 신세와 같다. 57년생 천하에 명성을 떨친다. 69년생 구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다. 81년생 하면 반드시 된다.</p>	<p>戌</p> <p>46년생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58년생 부부간에도 최소한의 예절은 필요하다. 70년생 모르면 약이고, 아는 것이 병이 된다. 82년생 정의를 반드시 승리한다.</p>	<p>亥</p> <p>47년생 바다가 조용하니 천하가 태평하다. 59년생 하나를 주고 둘을 얻는다. 71년생 오직 실력만이 살 길이다. 83년생 그냥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줘라.</p>